

## 유럽과 미국인의 琵琶 西方起源說과 그 批判

岸邊成雄(키시베 시게오)/金英峰 譯

(국립오사카대학 박사과정)

### I

유럽과 미국인의 중국 음악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상당한 양에 달하여 질적으로 높은 것도 있다. 그러나 중국 음악을 연구하려면 음악연구자이며 동시에 동양학자여야 하는데 이 자격을 갖춘 이는 상당히 드물다. 프랑스의 동양학자 모리스 쿠란의 최근 저서<sup>1)</sup>에서 이 요망에 답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중국 문헌의 대규모 번역 및 편찬이라고도 말할 만한 것으로서 세밀한 역사적인 연구는 아니다. 또 그는 음악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음악 이론적인 고찰이 부족하다. 이 번역 편찬 가운데 그의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은 주로 유럽과 미국인을 위한 자료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 음악 자체의 연구에서 의외로 기대할 것이 적은 반면, 유럽·미국에서 현저한 발달을 보이고 있는 비교음악학의 분야에서 오히려 우리들이 얻을 만한 것들이 많다. 특히 비교악기학에 있어서는 선학인 칼 엔젤(Carl Engel)이 있고, 현재는 쿠르트 작스(Curt Sachs)가 나와, 우수한 연구를 남김과 동시에 후배 양성에 노력하는 등 비교악기학에 기초를 쌓았다. 이 비교악기학은 그 단서를 세계의 원시 및 고대음악의 병렬적 비교에서 찾았다. 특히, 바빌로니아, 앗시리아, 페르시아, 아라비아, 그리이스, 인도 등의 고대를 중심으로 그 동서에 위치한 유럽 및 극동(중국·일본)과의 비교와 관련성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른 이론바 과학에서와 같이 단순한 병렬적인 비교와 동시에 유기적·역사적인 연관성의 발견에도 노력하여야

1) Maurice Cournt, Essai Historique sur la Musique des Chinois, A. Larignac 編, Encyclopédie de la Musique et Dictionnaire du Conservatoire. Histoire Vol. 1, 1913.

바이올린의 기원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이 늦었던 것은 아니지만, 영국의 슈레진거(K. Schlesinger)의 논저가 발표된 이후, 바이올린族 및 그것과 계통이 동일한 류트(Laute)族의 역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벤(F. Behn), 가이링거(K. Geiringer) 등의 논문이 뒤이어 발표되었다. 한편 독일의 작스, 호른보스텔 등의 대규모 악기학적 연구에 의하여 류트(Laute)族의 계통적 분류가 이루어졌다. 작스 등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C. Sachs und Hornbostel, E. M. v. ; Systematik der Musikinstrumente(Zeitschrift für Ethnologie, 1914 Heft 4/5).

C. Sachs ; Handbuch der Musikinstrumente, 1913.

C. Sachs ; Geist und Werden der Musikinstrumente, 1929.

의 3개 책에서 읽을 수 있다. 또한 아라비아어로 쓰인 풍부한 문헌을 기초로 아라비아 및 페르시아의 음악 연구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화아머(H. G. Farmer)도 류트(Lute) 및 레باب(Rebab)에 관하여 상당한 견해를 갖고 있다.

이들 연구의 진보와 함께, 중국 비파와 류트와의 비교가 이루어져서, 비파도 류트의 한 계통에 속한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나아가 페르시아에서 중국으로 유전(流伝)하는 경로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유럽과 미국인의 연구는 모두 서방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비파 자체를 연구한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동아시아측 입장에 있는 학자들로부터 많은 오류가 지적된 것이다. 내가 피력할 수 있는 비파의 연구논문은 발표된 것의 전부는 아니다.

존재를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며, 알고 있어도 볼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들은 장래 기회가 있을 때 보충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 비파의 역사-기원, 변천, 종류-에 관한 문헌학, 고고학 및 언어학의 지식을 종합하여 행한 역사적 연구인 고고학 잡지(소화 22년 10월, 12월호)에 발표한 줄고 「琵琶의 淵源-특히 正倉院五絃琵琶에 관하여」는 본 논문과 표리를 이루는 것이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특히 본고에 수록해야 할 참고도판은 거의 前稿와 중복하므로(「민족음악학」 제15집 pp. 152~199에 번역 수록됨) 본고에서는 생략했다.

## II

쿠르트작스는 1913년에 Real-Lexikon der Musikinstrumente를 출판했다. 이 책에는 동서고금의 악기가 집대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약 100개의 류트(Laute)族의 악기가 유럽·근동·인도·페르시아·아시아·서아프리카·동·중·남 각 아프리카·아메리카로 분류되어 아시아部에는 중국의 P'ip'a(琵琶)·티벳(Pi wang) 일본의 비와(琵琶)가 포함되어 있다. 이 P'ip'a 項을 보면 P'ip'a는 바르비톤(Barbiton)이라는 악기에서 기원한다고 쓰여져 있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중국 비파의 기원을 명확히 서방으로 보았던 최초의 견해일 것으로 생각한다.

K. 슈래진거의 저서 “Precursor of Violin Family(1910)의 부록 A “The Barbiton”에 의하면, 바르비톤은 중세 유럽의 저음 류트의 명칭으로 기원 전후경 그리이스의 일종의 현악기이며, 그 기원은 페르시아 류트의 명칭이었던 바르बाट(Barbat)라고 한다. 작스는 前掲 Real Lexikon의 Barbiton 項에서 바르비톤과 바르बाट을 연결시킨 방법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Barbat(Barbud)는 오히려 梵語의 bharbhi(현을 세계 굽는 의미)에서 그 어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작스는 바르बाट의 명칭을 바르비톤보다 후대의 것으로 생각하여 슈래진거의 설을 바르बाट가 바르비톤에서 나왔다는 것처럼 해석했기 때문에 이 반대론을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작스의 잘못된 생각으로서 슈래진거의 설은 오히려 바르비톤이 바르बाट로부터 나왔다고 해석해야 한다. 바르बाट의 이름은 8세기 이후의 아라비아 문헌에서 최초로 나타나며, 거기에는 6, 7세기경에 사산조에 있었던 악기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악기보다 선행하는 오래된 고고학상의 예와의 관계를 보면 바르बाट는 상당히 오래된 명칭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마 바르बाट나 바르비톤도 동일한 근원으로, 작스가 제시한 범위 bhardhi는 이 두 개의 단어를 낳은 원형이든지 혹은 그것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인도 아리아어에서와 같아서 언어학적으로도 허용될 것이다.

작스는 바르비톤의 명칭만이 아니라, 그 形狀的 性質 등도 중국의 비파와 동 계통에 속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前記의 Real-Lexikon 1913, Die Musikinstrumente Indiens und Indonesiens 1923 및 Geist und Werden der Muskinstrumente 1929). 그러나, 形

狀, 性質, 名稱, 歷史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더욱 비파에 근사한 것은 앞에서 말한 바르밧트이다. 바르밧트에 관해서는, 슈래진거의 前掲書 및 화아머에 의하여 문헌상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작스, 벤, 가이런거 등에 의해서 고고학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 양 방면의 연구결과는 어느 정도 일치되어 그들을 종합하면 바르밧트에 관한 대체적인 윤곽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영국의 보드레이안 문고(Bodleian Library) 등에 소장되어 있는 풍부한 아라비아 문헌을 구사해서 아라비아 음악의 연구에 많은 공적을 올리고 있는 H. G. 화아머에 의하면<sup>2)</sup> 페르시아가 아라비아인에게 정복당하기 이전 즉, 늦어도 6~7세기경에, 페르시아의 류트는 바르밧트(Barbat)라고 불리었는데, 그것이 아라비아에 전래되어 우드(el'ud)가 되고 더욱 아프리카 北岸을 지나 스페인을 건너가 유럽에 전래되어 중세의 류트가 되었다고 한다. 사산조의 銀皿에 보이는 류트가 그 바르밧트이다. 그런데 바르밧트의 사산조 이전의 실례를 페르시아에서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바르밧트라는 명칭이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산조의 銀皿에 그려진 것과 같은 류트 혹은 그것의 선행자가 페르시아나 혹은 그 부근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슈래진거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바르밧트의 선행자 혹은 동행자였던 후기 미케네 문화(기원전 1000) 고대 페르시아(예를 들면 스사 Susa의 출토품—기원전 8세기) 간다라 조각(1~2세기) 고대 인도(예컨대, 아잔타의 벽화—6세기) 중국령 터키스탄=신강성(8세기?) 등의 예를 통하여 류트와 레밭의 기원 및 바르밧트로의 경과에 관하여 여러 가지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바르밧트에 이르는 역사의 연구는 범위가 광대하고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며,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또한 계속해서 신자료가 속출하는 오늘날에는 아직 결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의 선행자 특히 간다라 류트와 바르밧트 사이에 유기적인 親子 관계가 있다는 것만을 고고학적 자료의 비교연구에 의해서 인정된다. 따라서 바르밧트의 고고학상의 실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산조 이전부터 페르시아, 간다라 지방 일대에 존재한 류트의 페르시아 이름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 즉, 이들의 실례에 의해, 또한 아라비아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기초하여

2) H. G. Farmer, Studies on Oriental Musical Instruments, 1931.

화아머의 저작은 다수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보면, 바르밧트의 주요소는 다음과 같다.

1. 梨型의 胴(birnförmig, pearshaped)(胴과 柄이 구별없이 胴이 자연스럽게 가늘어져 柄에 도달하는 형태로서 중국의 비파와 같다).
2. 四絃
3. 柄의 先端에 있는 軫을 받아들이는 상자의 부분(Wirbelkasten)이 柄에서 직각으로 후방으로 꺾여 있다.
4. 軫을 좌측으로 가슴 앞에 가로 혹은 斜橫으로 악기를 안는다.
5. 撥(중국 비파의 撥보다 작다).
6. 胴의 표면 하단 근처에 실을 이은 가로의 작은 板(비파에서의 覆手)이 있다.

### III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화아머, 슈래진거, 작스 등에 의해서 시도되었던 고고학적 및 문헌적 연구와 대비되는, 순수히 고고학적 자료만에 의한 악기학적 연구가 벤 및 가이린거의 두 학자에 의해서 행해졌다.

벤(Friedrich Behn)은 Die Laute im Altertum und frühen Mittelalter(Zeitschrift für Musikwissenschaft 1919)에서 우선 사산조의 류트와 중국 비파가 동일계에 속한다는 것을 고고학 자료에 기반하여 지적하였다. 전술한 바르밧트의 주요소는 거의 그대로 중국 비파에 적용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이 견해는 옳다. 그러나 그 流傳의 年代에 관하여 언급해 보면, 漢唐시대에 서역 교통로의 요지였던 高昌—오늘날의 신장성 동북부 吐魯番(Turfan) 부근—에서 최근 발견된 벽화에 보이는 비파의 예를 5세기의 것으로 생각하여 사산조 류트의 중국으로의 流傳 연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하다. 첫째, 이 吐魯番의 예는 이 논문에 圖示되어 있지만, 출전도 명기되어 있지 않다.

대체로, 20세기 초두부터 신장성에서 영국·독일·프랑스 및 일본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고고학적 탐험사업은 적지 않은 음악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미술품이 발견되어 동서음악 교류의 자취를 밝는데 유력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의 가치는 일본은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도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단

지 독일의 제1회 토루판 탐험대의 일원이었던 게오르그 후드(George Huth)의 아들이며, 작스·호르보스텔 등의 제자인 아르노 후드(Arno Huth)가 베를린대학 철학과 졸업 논문에서 이 자료의 목록을 작성했다. 제1부에서는 작스의 악기 분류법에 의해서 목록을 만들고, 제2부에서는 미술상의 계통에 의하여 음악 자료의 시대적 지방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 역사적인 분류는 음악 자료를 취급하는 가장 초기에 해야 할 일인데, 종래에는 행하지 않았다. 후드는 이 일의 선구자인 셸이다. 그러나 이 분류 특히 제2부에서 시도했던 악기의 전래 즉-터키스탄과 페르시아, 인도 및 중국과의 관계에 관한 서술이 불충분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현악기를 전부 페르시아 쪽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종전 유럽과 미국인의 연구에서는 기지의 사실로 하는 것조차 이용하고 있지 않다. 이 오류는 이후에 벤이나 가이링거의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아물든 이 터키스탄에서 새로 나온 풍부한 자료의 과학적인 이용으로서 야기되는 것 가운데, 위대한 것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편, 벤이 인용한 吐魯番의 자료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5세기로 확정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생각컨대, 吐魯番의 비파 자료는 기원 전후부터 10세기에 걸쳐서 서방뿐만 아니라 중국 비파의 역수입에서조차 보이기 때문이다. 후드의 목록 및 내가 조사했던 범위에 관한한 5세기경 高昌에서 비파의 실례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벤은 중국 비파와 사산조 류트의 관계를 찾아냈으나, 그 渡伝의 경로에 관해서는 충분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 같다.

이어서 벤보다 한층 일보 앞선 최신의 연구가 가이링거(Karl Geiringer)에 의하여 1928년에 발표되었다[Urgeschichte der europäischen Laute bis zum Beginn der Neuzeit(Zeitschrift für Musikwissenschaft, 1928)].

이 논문에서 최초로 주목되어진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사산조의 류트를 사산조 다음 시대(Nachsassanidische Zeit)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유럽의 류트는 인도의 류트에서 나왔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종래의 사람들이 사산조의 것으로 본 銀皿을 후기 사산조 즉 8세기 이후의 예술이라고 하여 사산조에는 류트가 존재했다는 고고학상의 증거를 결여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사산조 음악의 고고학적 자료는 대단히 근소하여, 이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산조 류트의 존재

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유럽 류트의 기원은 사산조의 류트(바르 바트)와 그것의 발전형인 아라비아의 류트(우드 el'ud)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가이린거처럼 유럽 류트의 기원을 인도에서 찾겠다고 가정해 보자. 形狀에 있어서, 인도의 류트는 가늘고 긴 棒狀에 유사하며 곁고 梨型이지 않다. 柄先端의 軫箱은 페르시아 및 유럽의 류트처럼 뒤쪽으로 구부러져 있지 않고 곧게 뻗어 있다. 또한 絃은 4현이 아닌 것이 많다. 이들 점에 있어서도 가이린거의 설이 謬說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다음으로 가이린거가 주목한 것은 인도쪽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자료로 생각되는 간다라 조각에 나타났던 류트이다. 간다라는 아프가니스탄의 인도 국경에 가까운 가불강의 谷地이며, 기원 12세기에 그리스 문화와 불교 문화가 교차하여 이른바 그리스 불교적인 문화(greco-buddhistic)가 번성하여, 이 문화가 서역(지금의 新疆省)을 지나 중국, 일본에 渡傳하여 文化史上 크나큰 발자취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이 간다라 조각에 보이는 류트는 페르시아의 류트와 유사하여 梨型, 四絃, 曲頸(軫箱가 뒤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의 류트와 胴의 중간부분이 잘록한 기타형, 4현기도한 것이다. 가이린거는 이 두 개를 페르시아 및 인도를 통하여 가장 오래된 류트라고 하며 원천을 알렉산더 시대의 테라코타(素燒陶器의 土偶)에 보이는 탐부르(Tambur)에서 찾아, 류트族의 선조를 탐부르라고 결론짓고 있다(A圖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류트의 선행자로 생각되는 것은 예로부터 많이 있는데, 가이린거



A圖 Geiringer의 논문에서

처럼 간단히 그 기원이나 계통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 두 종류의 류트는 후세의 류트와 형태가 상당히 비슷하고, 또한 시대가 상당히 오래 전이라는 주목할 만한 점이 있으므로, 이것을 특별한 가이린거는 爛眼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타형의 것은 이후 중세 유럽에 나타나, 이전에는 다른 例를 볼 수 없다. 단지 신강성 미란의 간다라적, 헬레니즘적인 벽화에서 유럽의 기타와 거의 동형의 것이 그려져 있을 뿐으로, 더욱 더 진기하고 귀중하다. 또한 梨型의 류트는 4현, 곡경, 주법

등의 여러 점으로 보아 사산조 류트에 가깝다고 하겠다. 가이린거는 이 간다라 류트를 그 이후의 동서 각지 류트의 源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의 류트는 인도에서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으나, 가이린거에 의하면 인도의 류트는 간다라 류트를 수입한 것이라고 한다. 즉, 아무라 바지의 조각이나 아잔타 벽화에서 볼 수 있는 棒狀(Keulen-förmig) 5현(아잔타에서는 絃數不定) 직경의 류트를 그 例로 보고 있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인도의 류트가 간다라 류트로부터 발생했는지 아닌지는 결정하기 어렵지만, 이 형태의 류트가 인도 특유의 류트라는 것은 다른 자료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다라 예술이 東傳할 때, 경유했던 옛날의 서역(현재 신강성)의 류트는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로 나온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가이린거는 그 예로 干闥(khotan)의 테라코타에 보이는 梨型 4현의 류트를 들고 있다. 이것은 슈레진거도 인용한 바 있어, 페르시아의 류트 및 간다라 류트와의 관계가 인정된다. 또 키지루(Qyzil 옛 龜茲)의 벽화 중에 그 아무라 바지의 5현 류트와 거의 同様の 것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琵琶의 淵源」 제21도 참조).

이상과 같은 서역의 2종의 류트를 다시 취급하여, 그것을 간다라 및 인도의 류트와 확실히 연결시킨 이 고고학적인 연구는 종래에 없었던 바로서, 가이린거의 최대 공적이다. 그러나 가이린거는 서역의 음악 자료에 앞에서 말한 후드의 연구와 같은 역사적인 고찰을 한 후에 이것을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例의 진정한 의의를 해결하지 않았다. 干闥과 龜茲는 동일한 서역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문화적으로 相違했던 두 지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논하면 안된다. 干闥은 서역의 남부에 있으며 일찍이 기원전부터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고, 또 간다라의 문화를 가장 많이 흡수하고 있는 반면, 龜茲(지금의 庫車)는 4세기부터 8세기에 걸쳐서 간다라 예술 위에 한층 이란의 색채를 가미하여 지방색 농후한 독자적인 문화를 지녔고, 梵語와 동 계통이며, 이 지역의 독특한 언어가 된 도카라어를 사용한 중세 서역에 있어 가장 융성한 문화권이였다. 그 문화를 오늘날 구자 문화 혹은 도카라 문화라고 한다. 구자의 5현 류트는 이 도카라 문화 특유의 것으로 구자에서 純 간다라 시대(4~6C)에는 없고, 그 이후인 이른바 도카라 문화 시대에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간다라 예술과 함께 일찍이 서역에 유입된 梨型, 四絃, 曲頸의 사산조 류트식의 것과는 계통상으로도



전래의 상황상으로도 완전히 다르다는 점은, 이 두 종류의 류트의 기원을 아는 이상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두 종류가 중국으로 전래하는 상황을 알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실이다.

결론으로 중국에 류트의 전래에 대하여 가이린저의 설을 들어보자. 그는 우선 페르시아에서처럼 중국에서도 고고학상 증거가 없는 것을 이유로, 비파의 수입을 5세기 경 불교 전래 이후로 보고, 중국의 전설(무슨 전설인지 내용도 근거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에서 漢代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허위의 기록이라는 대담한 단론을 내리고 있다. 남북조(5, 6세기)시대에 돌입하여 처음으로 조형미술에 나타나는 중국의 비파는 페르시아 및 간다라의 梨型 류트에 가까우며, 4현, 곡경으로 폭이 조금 넓다. 이것과 동시에 円形의 胴에 똑바르게 柄이 삽입되어 있는 네 줄의 현을 지닌 완함(이후의 월금)이 있고, 세번째로 그 아무라 맞지나 키지루에서 볼 수 있었던 5현 류트와 완전히 동일한 5현 비파가 唐의 조각에 보인다(琵琶의 淵源 제14도 참조). 중국식 폭이 넓은 비파는 이 인도식의 棒狀 류트와 완함을 융합한 것이리라는 점이 중국 비파의 기원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

중국에서 3종의 비파를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서 뚜렷이 구별하여 다루었다는 점은 옳다. 특히 5현 비파의 존재를 처음으로 분명히 하고, 인도에서의 源流와 서역에서의 流傳의 증거까지 제시한 점은 크나큰 공적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중국 비파 수입의 연대, 상황 및 그 계통에 관한 이 결론은 거의 오판이다. 첫째, 그의 결론에 의하면, 중국 비파는 인도 5현 류트의 유입 이후 중국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중국에 5현 비파가 나타난 것은 남북조 이후였고, 중국의 보통 비파는 그 이전에 이미 넓게 중국에 유포해 있었다는 것이 문헌상 명확하다. 중국 오현 비파의 선형자인 구자의 5현 류트조차 후기 도카라 문화(6~8세기)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5현 비파가 중국 비파보다 먼저 중국에 유입되었다고는 절대 생각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는 완함과 5현 비파가 어떻게 융합하여 중국 비파가 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생각해 보면, 이들 오류를 범한 원인은 첫째로, 중국의 문헌을 이용하지 않고, 단지 고고학적 자료만 의거한 점에 있으며, 둘째로 중국 및 터키스탄의 풍부한 고고학적 자료의 이용법이 불충분하며, 역사적 인식이 결여된 점에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양사학의 지식이 불충분한 까닭일 것이다. 유럽과 미국

의 비교악기학은 이 점에 있어서 아직 충분히 學的이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으로서 유럽과 미국인의 중국 비파 기원에 관한 연구의 간단한 소개와 비판을 끝냈다. 이상의 비판을 근거하는 상세한 나의 생각은 고고학 잡지에 발표한 줄고 「琵琶의 淵源」(本書所收)(「민족음악학」 제15집 pp. 152~199 번역 수록)에서 논하고 있다.

### 참고문헌

岸辺成雄, 欧米人の琵琶西方起源説とその批判.

東洋淫樂選書[二] 『唐代の樂器』, 東京: 音樂之友社, 昭和 43年 1月, pp. 157-167.

Kishibe Shigeo, On European Opinions of the Western origin of the P'ip'a(Chinese lute).